



## (주)리코코리아, 리코 프로 C5100S 8100S 론칭 파워풀한 사양 · 생산성으로 ‘성공 파트너 우뚝’

(주)리코코리아(대표이사 사카이 하루히사, [www.ricoh-korea.co.kr](http://www.ricoh-korea.co.kr))는 지난 7월 11일 공식 론칭행사를 갖고 혁신적인 기술의 친환경 디지털 인쇄기인 리코 프로 C5100S 시리즈, 리코 프로 8100S 시리즈와 워크플로 솔루션 ‘토틀플로(Totalflow)’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리코의 솔루션즈 파트너사를 비롯한 많은 관련 업계 고객이 참석했으며, 리코의 신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이 표출됐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r.or.kr](mailto:kjcho@prinr.or.kr)

리코코리아가 이번에 론칭한 신제품은 정밀한 표현을 위해 고가의 인쇄기에 적용되는 혁신적인 VCSEL(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기술을 적용해 전문가 수준의 인쇄물을 출력할 수 있으며, 장시간 출력에도 인쇄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세스 제어 기술을 탑재했다. 리코 프로 C5100S와 리코 프로 8100S는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높은 생산성과 저렴한 유지비용을 동시에 실현한 최적의 가성비를 자랑한다.

### C5100S...‘레자크지’ 계열 미디어도 ‘OK’

리코 프로 C5100S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업무를 신속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분당 최대 80페이지의 컬러 및 흑백 인쇄가 가능하며 최신의 PXP-EQ 토너를 사용해 4800dpi의 고품질 컬러 이미지 해상도를 지원한다. 사용되는 토너의 양을 적절히 제어해 일정한 인쇄품질을 보장하는 액티브 토너 컨트롤 기능과 AC 트랜스퍼 기술을

통해 일반 인쇄에서 어려웠던 ‘레자크지’ 계열의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 용지 잼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애니메이션 가이드와 LED 가이드 기능을 제공한다. 기본 인쇄 사이즈는 330×488mm이지만, EFI와 수동트레이를 사용하면 최대 330×1260mm까지 인쇄할 수 있다. 다양한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최신의 EFI 프린트 컨트롤러를 옵션으로 제공한다.

### 8100S...비용 절감하고 용지 수용성 확대

리코 프로 8100S는 동종 흑백인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800dpi 해상도를 지원한다. 높은 생산속도와 이미지 품질을 지원하는 동시에 비용은 줄인 합리적인 제품이다. 최대 135ppm의 인쇄 속도를 갖췄으며, 40~300g/㎡의 폭넓은 용지 수용성과 단면 120ipm, 양면 220ipm의 우수한 스캔 성능을 보였다. 월간 3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생산량을 자랑하는 리코 프로 8100S는 대량출력이 가능해 순간 작업량이 많



1. 리코 프로 C5100S 8100S 론칭 행사장 전경 2. 신제품 런칭행사서 인사말을 하는 이재욱 부사장 3. 리코 프로 신제품 출시 기자간담회 4. 마케팅 정책에 대해 밝히는 이재욱 부사장 5. 리코 프로 C5100S 6. 리코 프로 8100S

을 때 안정적인 출력을 지원한다. 20페이지마다 자동으로 농도 검사를 수행, 대량 출력 시에도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프로세스 컨트롤러를 탑재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맞는 후처리 옵션을 지원해 작업의 영역을 더욱 넓혔다. 새로운 벨트 퓨징 기술은 기존 디지털인쇄기의 가장 큰 단점인 용지 쉐이빙을 최소화하고 퓨징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와 롤러 자국을 방지함으로써 완벽하고 안정된 품질로 가동시간을 늘리고, 비용을 낮춰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의 성능을 더욱 개선했다.

### “고품질·다양한 용지 지원으로 트렌드 부응”

신제품 출시에 앞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주)리코코리아 이재욱 부사장은 새로운 제품의 비즈니스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명성에 걸맞게 한국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며 “다품종 소량 출력 시대에 맞춰 고품질과 다양한 용지 수용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리코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중저가 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이엔드 그래픽 아트 제품의 품질을 원하지만, 출력량이나 투자비용, 운영 등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특히 리코코리아는 글로벌 기업 리코가 한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세운 전략기지로써 이미 세계 시장을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인쇄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리코코리아는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혁신 제품 기반 하이 프로덕션 추가 공략”

이 부사장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첫 번째로는 광고 및 국내외 이벤트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로 서울 주요 시내 옥외광고, 터미널, 지하철과 버스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0일부터 영국에서 개최된 2014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 대회 홍보 및 TV 광고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 인쇄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지역별로 리코 제품 전시회 행사를 통해 리코 브랜드 및 제품을 널리 알리고, 고객들이 리코 브랜드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신뢰를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시장에서 리코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세 번째로는 시장이 필요로 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좋은 성능의 제품을 국내에 지속적으로 출시해서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에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한 니즈들을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리코그룹에서는 앞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기반으로 하이 프로덕션 시장을 공략하는 추가적인 다양한 신제품들을 출시할 계획이다. 향후 추가적인 신제품들이 출시되면 리코코리아의 제품 라인업이 보급형 모델에서 고사양에 이르기까지 확대돼 시장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